

하절기의 사료급여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 성 복
두산사료(주)

- 아미노산 밸런스를 갖춘 사료, 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농장 수익개선을 가져온다. -

1. 산란피크도 중요하지만 산란지속성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갈색계도 육종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산란율이나 체중 등이 백색계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산란성적이 과연 바람직한 성적을 얻고 있는가?”를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피크 산란율이 각 품종회사의 기준 산란피크와 비슷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그림 1과 같이 피크산란율은 비슷하나, 피크 이후 산란지속성이 떨어져 낮은 산란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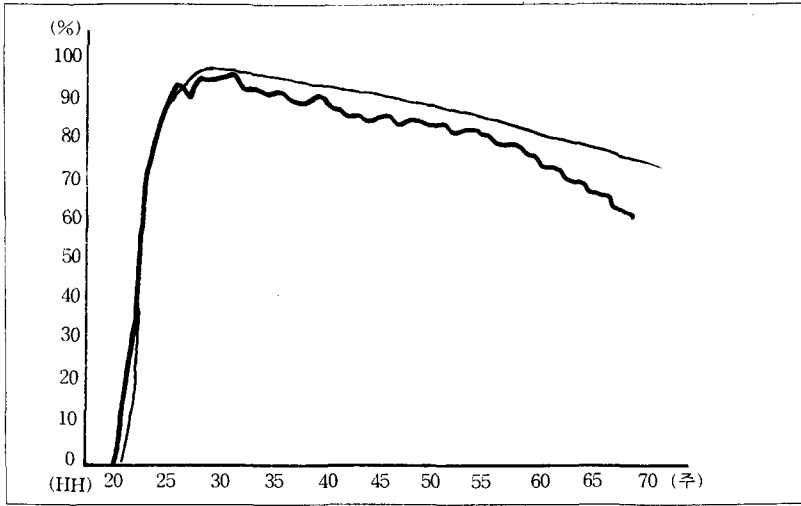
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닭의 육종개량이 진행됨에 따라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영양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산란계 체중이 기준체중을 초과하는 경우보다는 미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닭의 체내에 영양소의 비축량이 적어져 산란지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각 농장에서는 정확한 산란성적 체크 및 수익분석을 하고, 개선 가능한 사항은 빨리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산란계 1수가 낳는 알의 수를 비교할 때,
기준 : 76주령까지의 산란지수=326
우리 농장의 실제 산란지수는 얼마나 될까?
산란지수 30(약 10g)의 차이는?
30개 × 80원/개=2,400원



〈그림1〉 기준 산란율과 농장의 실제 산란율 비교

사육규모가 1만수일 경우 2천4백만원, 2만수일 경우 4천8백만원의 수익 차이가 발생된다.

2. 하절기의 산란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산란계의 영양소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고, 산란계 영양소 섭취량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좀 더 나은 고효율사료를 급여하는 것이다.

특히, 그림2와 같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여름철은 영양이 많은 고효율사료를 급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름철에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고온 스트레스에 의해 식욕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둘째, 영양소의 체내 대사 과정에서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닭에게 열에 의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아미노산 균형은 맞지 않고, 단백질 함량만 높은 사료는 체내 열량증가가 높아, 오히려 닭에게 부담만 주어 역효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적은 사료 섭취량으로도 닭의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효율사료의 급여가 필요하다.

표1. 기온과 산란계의 에너지 섭취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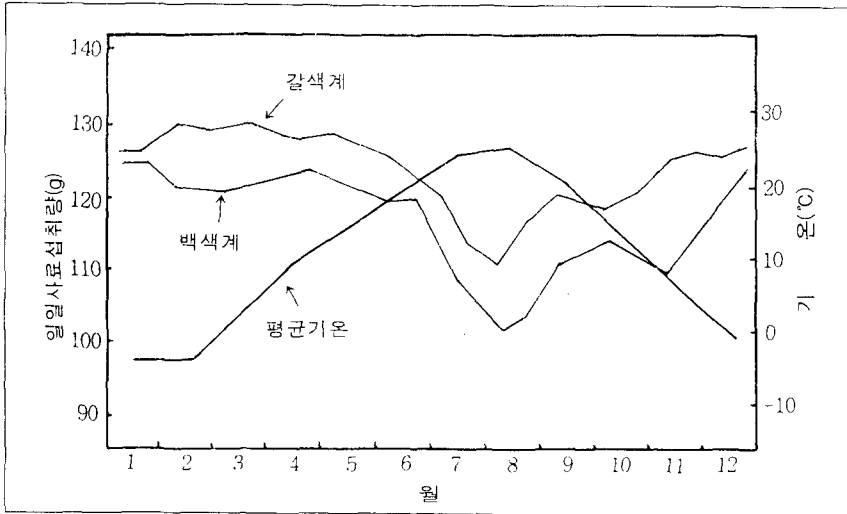
사료의 대사 에너지 수준 (kcal/kg)	18℃		30℃	
	일일사료 섭취량(g)	일일에너지 섭취량(kcal)	일일사료 섭취량(g)	일일에너지 섭취량(kcal)
2,560	127	325	107	274
2,760	118	326	104	287
2,960	112	330	102	301
3,150	106	334	101	318

표2. 산란계 경제능력검정 결과에 나타난 재래식 계사와 자동화 계사의 차이

구분	재래식 계사	자동화 계사
산란율(72주령, %)	79.4	79.6
사료요구율(72주령)	2.46	2.40
평균난중(72주령, g)	62.9	62.0
1일 수당 사료섭취량(72주령, g)	112.1	108.7

※ 각각의 계사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계통의 닭의 성격의 총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 검정기간 : '95년 4월 ~ '96년 10월



〈그림2〉 서울지방의 월평균 기온과 산란계의 평균 사료 섭취량

표1, 2의 결과에 따라 특히, 하절기에는 고효율 사료급여가 필요한데, 이 사료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아미노산의 균형에 중점을 두어 설계한 사료이어야 한다. 아미노산 균형을 무시한 고단백질 사료는 열량증가로 인한 체내 열발생을 증가시켜 고온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영양소별 열량증가 : 단백질 > 탄수화물 > 지방

둘째, 지방을 첨가하여 기호성을 증진시키고, 체내 열량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셋째, 비타민과 광물질 함량을 강화하여 고온 스트레스를 줄인다.

3. 하절기의 사료급여관리 포인트

닭의 능력, 산란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

효율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섭취량이 감소하는 하절기에 사료 급여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표3의 일반사료와 고효율사료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효율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산란 성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하절기에는 아미노산 균형을 맞춘 사료, 지방이 첨가된 고에너지 사료, 비타민과 미네랄이 강화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산란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시켜 닭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산란 지속성을 높이고, 농장에 수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하절기의 사료 급여관리”라고 할 수 있다.

표3. 일반사료와 고효율사료의 산란지수 비교

구 분	1일 요구량	일반사료 (A)	고효율 사료(B)	차이 (B-A)
ME(Kcal)	285	275	285	10
Lysine(mg)	880	800	900	100
Methionine(mg)	430	380	450	70
Ca(g)	4.0	3.7	4.0	0.3
A.P(g)	0.40	0.36	0.40	0.04
산란지수		326	356	30
사료비(원/수)		9,800	10,780	980

주) 1. 하절기 사료섭취량 감소에 따라 1일 100g 섭취했을 때

4. 이제는 백색계란을 먹을 때이다

백색계란을 먹는 것이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나 계란을 소비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색계가 갈색계에 비해 계란 생산성이 높다.

갈색계가 많은 육종개량이 되어 백색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나, 아직은 백색계가 갈색계에 비해 적은 사료섭취량으로 계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그만큼 저렴하게 계란을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둘째, 백색란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계란내 혈반, 육반 등의 발생이 갈색란보다 적다.

셋째, 백색계는 최근 문제가 심각한 가금티푸스 질병에 강한 항병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렉에 대한 예방조치가 선행된다면, 갈색계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백색 산란계가 사라진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갈색계와 백색계의 비율은 대략 50 : 50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100% 갈색계를 사육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백색 산란계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로 계란소비자의 갈색란 선호도에 의한 것이다.

계란 소비자의 대부분인 가정주부들의 생각

이 백색란보다는 갈색란이 영양면에서 더 좋으리라는 잘못된 선입관으로 인해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갈색란과 백색란은 영양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수준인 것이다.

두번째로 갈색계란 위주로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갈색란이 백색란에 비해 2~3원/개 정도 마진이 좋았기 때문이다.

'90년대 들어 요드란, 영양란 등 기능란 시장이 형성, 급성장하는 시장 변화가 갈색계 사육증가에 한 몫을 하였다.

세번째로 질병인데, 백색계의 경우 마렉 질병에 약해 폐사가 많은데 비해 갈색계는 마렉 질병에 강한 품종이므로 '90년 들어서 갈색계 품종으로 급격히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역으로 가금티푸스가 만연되면서 가금티푸스 질병에 약한 갈색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같이, 갈색계란 소비에 대한 당위성이 희석되고 있고, 넓게는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백색계란을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우리 양계인들은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백색계란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계**

**알먹고 키사랑
닭먹고 힘사랑**